

## 여대생의 절식 및 폭식행동에 대한 자기-평가의 신체 중요성 지각 모형\*

박 정 수<sup>†</sup> 이 민 규 신 희 천  
아주대학교

본 연구는 자기-평가에서 신체 중요성 지각이 절식 및 폭식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섭식행동에 관한 최근 모델인, 삼자 영향 모형(tripartite influence model; Keery, van den Berg, & Thompson, 2004)을 토대로, 자기-평가의 신체 중요성 지각 모형을 구성하여 적합도를 알아보았다. 여대생 731명을 대상으로 사회문화적 영향(부모, 또래, 미디어), 신체 비교, 마른 이상의 내면화, 신체 중요성 지각, 신체 불만족, 절식, 폭식행동을 평가하여, 구조방정식 모델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삼자 영향 모형의 '마른 이상의 내면화' 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형의 '신체 중요성 지각'이 신체 불만족과 절식행동을 유의미하게 직접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기를 평가할 때, 신체를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할수록 신체 불만족도가 높아지고, 절식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섭식 장애, 섭식 행동, 신체 불만족, 신체 비교, 신체 중요성 지각, 사회 문화적 영향

---

\* 본 논문은 박정수의 석사 학위 논문 일부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박정수 /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 5번지  
FAX : 02-957-1997 / E-mail : jsparkregl@naver.com

현대 사회는 풍부한 먹거리를 쉽게 얻을 수 있는 환경이지만, 전반적인 사회 풍토는 날씬한 몸매를 이상적으로 여긴다. 날씬함의 사회적 기준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에 맞춰 이상적인 몸매를 추구할수록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은 점점 커지게 된다. 많은 여성들이 신체 불만족을 해결하기 위해 다이어트를 시도하며, 적게 먹는 다이어트 방법인 절식을 손쉽게 택하게 된다. 그러나 지나친 섭식 억제는 섭식장애에 이르게 할 수 있다(Stice, 2002). 최근 전 세계에 있는 22개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한국 여대생들이 상대적으로 체중이 적게 나감에도 불구하고, 체중 감량을 가장 열심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ardle, Hasse, & Steptoe, 2006). 지나친 섭식 억제가 섭식장애의 주된 원인임을 고려해 보면, 이런 결과는 한국 여성들이 장래에 섭식장애에 취약해 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섭식 장애 행동은 크게 거식행동과 폭식행동으로 나뉘는데, 심한 다이어트는 거식행동으로 이어지고, 다시 거식행동은 폭식행동을 일으킨다. 여러 심리적 장애 중에서, 섭식장애는 사회적, 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는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심리적 요인들과 함께 사회 문화적인 요인들을 고려하는 것이 섭식장애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최근 들어 섭식 장애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심리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요인을 모두 포함시킨 이론 모형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이중 경로 모형(dual pathway model)’과 ‘삼자 영향 모형(tripartite influence model)’이다. 이중 경로 모형에서는 마른 신체를 가져야 한다는 주변의 압력을 받는 경로와, 마른 신체 이상을 자신

의 가치로 내면화하는 각각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자신의 몸매 혹은 신체에 대한 불만족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한다(Stice, Nemeroff, & Shaw, 1996; Stice, 2001). 이러한 신체 불만족은 다시 원하는 몸매를 갖기 위한 다이어트 행동과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섭식절제로 인한 다이어트는 폭식에 노출될 위험을 증대시키게 된다.

‘삼자 영향 모형’은 부모, 또래, 대중 매체로부터 ‘말라야 된다는 압력’이 ‘신체 비교’와 ‘마른 이상의 내면화’를 증가시키는 과정을 통해, 신체 불만족이 증가한다고 설명한다(Keery et al., 2004; Thompson, Heinberg, Altaba, & Tantleff-Dunn, 1999). 그리고 신체 불만족은 이중 경로 모형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절식과 폭식행동을 유발하게 된다. 이 두 모형은 개념적으로 유사한 특징을 지니고 있으나, ‘이중 경로 모형’은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고 평가된다.

‘이중 경로 모형’은 ‘말라야 된다는 압력’과 ‘마른 이상의 내면화’ 사이에 어떤 관계도 가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Twamley와 Davis(1999)는 ‘마른 이상의 내면화’가 ‘마름에 대한 기준 지각’과 ‘신체 불만족’ 사이의 관계를 67% 매개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문화적 압력과 마른 이상의 내면화가 독립적이기 보다는 사회문화적 압력과 신체 불만족 사이를 마른 이상의 내면화가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즉, 사회문화적 압력과 신체 불만족 간의 관계가 분명해 보일지라도, 사회문화적 압력이 직접적으로 신체 불만족을 유발한다기보다는, 한 개인의 내적인 심리과정을 통해 신체 불만족이라는 정서적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실제로 Keery 등(2004)은 ‘삼자 영향 모형’에서 사회문

회적인 영향(즉, 부모, 또래, 대중 매체)과 신체 불만족 사이의 관계를 따른 이상의 내면화가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매개함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여대생들의 이상 섭식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모델로서, '삼자 영향 모형'을 채택하였다. 다음에서는 '삼자 영향 모형' 내의 변인들인 '사회문화적 영향(부모, 또래, 미디어), 신체 비교, 따른 이상의 내면화, 신체 불만족'과 수정 모형의 주요 변인인 '신체 중요성 지각'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수십 년간, 여성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상적인 체중은 급감하는 한편, 체중 감량을 강조하는 대중 매체의 메시지는 급증하였다(Garner, Garfinkel, Schwartz, & Tompson, 1980). 게다가 대중 매체를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중매체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져가는 실정이다. Heinberg와 Thompson(1995)이 여대생 실험 집단에게 10분 동안 날씬한 외모와 관련된 광고를 보여준 결과, 실험 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신체 불만족, 우울, 분노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단기간동안의 대중 매체의 노출도 여성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중 매체의 영향뿐만 아니라, 여성들은 주변의 친구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쉽다. Lattimore와 Butterworth(1999)는 친구들이 다이어트 행동에 몰두하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이 섭식 제한을 유의미하게 예측한다고 하였다. 또한 친구들이 체중에 대해 놀리게 되면, 섭식 제한을 하고 신체에 대한 지나친 염려를 하게 된다는 결과도 있다(Paxton, Schutz, Wertheim, & Muir, 1999; Stormer & Thompson, 1996). 이러한 대중매체와 친구의 영향 외에도, 부모의 영향력 역시 중요한 사

회문화적 요인이다. 국내에서 초등학교 여아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어머니의 신체 불만족, 체중에 대한 염려, 제한된 섭식은 딸의 신체 불만족, 체중에 대한 염려, 제한된 섭식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노은아, 안창일, 2005). 폭식증인 여대생의 어머니들은 정상 집단의 어머니에 비해, 자신의 딸을 과체중이라고 지각하고 체중 감량을 격려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Moreno & Thelen, 1993). 게다가 폭식증 집단과 준폭식증 집단은 통제 집단에 비해 가족들에게 체중과 관련된 놀림을 더 많이 받았다고 보고하였다(Kanakis & Thelen, 1995). 결과적으로 개인이 대중매체, 또래, 부모로부터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가치를 지각하게 되면, 이와 관련된 개인의 심리적 변화가 생기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삼자 영향 모형을 기초로 하여, 사회문화적 영향과 관련된 신체 비교, 따른 이상의 내면화, 신체 중요성 지각, 신체 불만족과 같은 심리적 과정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신체 비교는 사회 비교이론에서 파생되었는데(Festinger, 1954; Goethals, 1986), 주로 외모와 체중 그리고 몸매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비교 이론에 따르면, 개인들은 자기-평가에 대한 강한 동기가 있어서, 비교에 대한 기준이 없을 때, 유사한 타인과 비교를 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Festinger(1954)가 가정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신체비교는 최근에 상호작용을 한 사람과 이루어지기도 하며(Gilbert, Giesler, & Morris, 1995; Morse & Gergan, 1970), 자동적으로 비교가 이루어질 수 있고(Morse et al., 1970), 객관적인 기준의 존재 여부와는 상관없이(Marsh & Parker, 1984), 그리고 자신과 유사한 속성을 지니고 있지 않더라도(Gilbert et al., 1995; Morse et al., 1970),

지속적으로 비교가 발생한다고 보고된다. 신체나 외모에 대한 사회적 비교는 여대생들의 살췌다는 느낌(Striegel-Moore, Silberstein, & Rodin, 1986), 신체 불만족(Heinberg & Thompson, 1992; Keery et al., 2004; Stormer & Thompson, 1996), 폭식과 마르고 싶은 욕망(Stormer et al., 1996)과 상관성이 있었다. 즉, 사회적 환경에서 사람은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기 쉬운데, 지나친 신체 비교는 신체 이미지 혼란과 이상 섭식 행동을 일으킬 수 있다.

마른 이상의 내면화는 날씬하고 마른 몸매에 대한 이상적인 가치를 자기 것으로 함입하는 것을 말한다. 내면화는 신체 불만족과 섭식 병리를 예측하며(Thompson & Stice, 2001), 사회문화적 영향과 신체 불만족간의 관계를 매개한다(Cusmano & Thompson, 1997; Heinberg et al., 1995). Morry와 Staska(2001)에 따르면, 패션잡지 구독은 내면화를 매개로 해서 신체 불만족뿐만 아니라 문제가 되는 섭식행동을 예측한다고 한다. 내면화와 관련된 국내 연구에서는 마른 이상의 내면화가 신체 자존감을 낮춘다는 결과가 있다(문정신, 2003). 이처럼 마른 이상의 내면화는 섭식 장애에 주요한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마른 이상의 내면화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개념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삼자 영향 모형’에서의 마른 이상의 내면화는 개인 내적인 심리과정을 포착하기 보다는 단지 ‘이상적인 이미지를 얻기 위한 목표나 소망예,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다.”;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3; Thompson et al., 2004’을 나타낸다. Cafri, Yamamiya, Brannick과 Thompson(2005)은 삼자 영향 모형에서의 마른 이상의 내면화가 사회문화적 영향을 내면화 하는 과정을 나타내기 보다는, “마른 이상

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만을 반영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이중 경로 모형’에서도 마른 이상의 내면화는 단지 ‘사회적 외모 기준에 대한 지각’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드러났다(Thompson, 2004). 따라서 ‘마른 이상의 내면화’는 그 측정도구가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정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회문화적 영향이 한 개인의 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진정한 내적인 심리적 과정을 측정하기 위해서, 보다 안정적이고 명확한 또 다른 심리적 변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 대안으로 ‘신체 중요성 지각’을 고려하였다.

‘신체 중요성 지각’은 자기-개념들 중에서 다른 것들보다 신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개념의 하위 요인들 중 체중과 몸매에 대한 지각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면, 사소한 신체적 불만족 경험도 전반적인 자존감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섭식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체중과 관련된 부정적인 자기-평가를 보고했으며(McFarlane, McCabe, Jarry, Olmsted, & Polivy, 2001), 신체를 중요하게 지각하는 것이 섭식 장애를 예측하였다(Frank & Thomas, 2003). Mendelson, McLaren, Gauvin과 Steiger(2002)는 섭식 장애 여성들이 전반적 자존감뿐만 아니라 신체 자존감이 낮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자존감이 신체 자존감에 좌우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한국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자기평가의 신체 비중이 절식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폭식에 대해서는 신체 불만족을 매개로 해서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된 바 있다(이상선, 2004). 현재의 사회문화적인 영향은 자기-평가에 있어서 신체의 중요성을 증대시키며, 이런 증가된

신체 중요성은 신체 불만족과 절식행동을 야기시킨다. 따라서 전반적인 자존감의 높낮음보다 신체와 관련된 자존감, 즉, 자기-개념에 있어서 신체 중요성 지각이 이상 섭식 행동을 예측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끝으로, 신체 불만족은 자신의 신체 부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말하며, 신체 불만족은 섭식 장애에 있어서 현저한 위험 요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신체 불만족은 다이어트를 할 가능성을 증대시키며, 다이어트는 또한 위험한 절식행동을 수반하게 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여성들이 효과적이고 쉬운 다이어트 방법으로 절식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Stice & Shaw, 2002). 이런 다이어트 행동은 신경성 거식증을 유발하며, 절제-위반 효과로 인해 폭식이 일어날 가능성을 높인다(Stice & Shaw, 2002). 종단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의 높은 신체 불만족이 초기 성인기의 신체 불만족 뿐만 아니라 섭식 장애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한다(Ohring, Graber, & Brooks-Gunn, 2002). Stice(2002)의 메타 분석 연구에 따르면, 신체 불만족이 다이어트와 섭식 병리에 영향을 주며, 폭식 병리를 유지시킨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신체 불만족은 섭식 병리에 있어서 중요한 예측 요인이면서 유지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문화적인 차원에서, 삼자 영향 모형의 연구 결과를 확인해 보기 위해, 우선 우리나라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모형을 검증하고자 했다. 삼자 영향 모형에서 사회문화적 영향은 마른 이상의 내면화와 신체 비교에 영향을 미치며, 그 다음으로 내면화는 신체 불만족과 절식행동에, 신체 비교는 신체 불만족에 각각 영향을 준다. 또한 사회문화적 영향은 직접적으로 절식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이상 섭식 행동을 설명하는 경로가 우리

나라 여대생의 섭식행동을 적절하게 설명해주는지 검증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다. 다만 우리나라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원래의 삼자 영향 모형에서 심리적 기능 변인(예, 자존감, 우울, 완벽주의)은 제외하였는데, 이 변인들은 섭식 장애의 예측 요인이 될 수도 있고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Keery 등, 2004; Stice, 2002). 두 번째로, 본 연구의 실제 목적으로, 삼자 영향 모형을 기초로 하여, 자기-평가의 신체 중요성 지각 모형을 설정하고, 두 모형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삼자 영향 모형의 ‘마른-이상의 내면화’와 자기-평가의 신체 중요성 모형의 ‘신체 중요성 지각 변인’이 서로의 영향을 통제된 상태에서, 사회문화적 영향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였다. 삼자 영향 모형에서는 사회문화적 영향이 마른 이상의 내면화에 미치는 영향과 신체 불만족과 절식에 대한 내면화의 역할을 특히 강조했다. 그러나 마른 신체는 이상일 뿐이어서, 개인이 그 이미지를 이상적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신체 이미지나 절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더욱이 내면화는 그 의미와 측정에 있어서 불안정한 개념으로 평가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체 중요성 지각’을 대안적 개념으로 제안하였다. 현대 사회에서는 신체에 대한 가치 평가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평가에 있어서 신체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영향을 통해 신체는 자기-개념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여겨지게 된다. 하지만 사회 통념적으로 이상적인 신체는 지나치게 비현실적이어서 개인들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불만족하게 되고 그에 따라 다이어트를 하게 된다. 즉, 사회 문화적 영향은 신체 비교와 신체 중요성 지각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신체 중요성은 신체 불만족과 절식행동에 영향을 주게 되어, 최종적으로 폭식행동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설을 ‘자기-평가의 신체 중요성 지각 모형’이라고 명명하였다.

## 연구방법

### 연구 대상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한 6개 대학의 여학생 총 731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하였다. 평균 연령은 20.81세 ( $SD = 1.75$ ), 평균 신장은 162.27cm ( $SD = 4.65$ ), 평균 체중은 52.68kg ( $SD = 6.23$ ), 평균 체질량 지수(BMI)는 20.01 ( $SD = 2.12$ ) 였다. 대상자 중 65.9%가 정상 체질량 범위 (18.5~22.9)였으며, 과체중과 비만 집단은 각각 4.9%, 2.3% 였다. 또한 응답자 중 54.6%(399명)이 현재 체중 감량을 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전체 설문지 작성에 걸린 시간은 평균 15분이었다.

### 측정 도구

#### 삼자 영향 척도-개정(Tripartite Influence Scale-Revised).

Keery 등(2004)이 개발한 척도로 섭식행동과 신체 이미지에 대한 부모, 또래, 미디어의 영향을 측정한다. 부모 관련 문항은 부모의 체중이나 몸매에 대한 몰두, 개입, 언급에 대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예, “당신이 날씬한 것이 어머니에게는 중요합니까?”). 또래 관련 문항에서는 친구들의 체중이나 몸매에 대한 몰두, 체중이나 몸매로 인한 거부나 놀림, 친

구들의 영향력에 대한 지각 등을 나타낸다(예, “한 명 이상의 친구가 살을 빼려고 다이어트 중이다.”). 미디어 문항들은 몸매와 체중에 대한 대중매체의 영향력 지각, 체중 감량에 대한 압력, 다이어트, 패션, 혹은 건강과 관련된 TV 프로그램이나 잡지를 보는 정도를 나타낸다(예, “내가 보는 잡지와 TV에서는 체중감량을 위한 다이어트를 강조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문항들을 약간 수정하였다. 동일한 질문 내용으로 구성된 TV와 잡지 문항을 통합된 문항으로 수정하였으며, 인터넷 관련 문항을 추가했다(예, “다이어트와 관련된 정보를 검색하거나, 관련 카페, 블로그, 클럽 활동을 한다.”). 인터넷 관련 문항들은 5점 척도였으며, 신뢰도는 .74였다. Keery 등(2004)의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부모=.88, 또래=.89, 미디어=.87의 신뢰도를 보였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는 부모=.89, 또래=.91, 미디어=.87 였다.

#### 몸매와 체중에 기반한 자아 존중감 척도(Shape and Weight-Based Self-Esteem Inventory: SAWBS).

Geller, Johnston과 Madsen(1997)은 몸매와 체중에 의해서 개인의 자기-가치감이 영향을 받는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였다. 제시된 9개의 속성들 중에서, 응답자는 지난 4주 동안 자기-가치에 중요했었던 속성들의 순위를 매긴다. 그런 다음 각 속성들이 원에서 어느 정도의 크기를 차지하는지를 원을 쪼개서 나타내게 된다. 9개의 속성은 연예관계, 성격, 얼굴, 학교/직장에서의 유능성, 몸매와 체중, 우정, 개인적 발전, 학교나 직장 이외의 곳에서 유능성, 기타이다. 이 척도의 점수는 몸매와 체중이 원에서 차지하는 각도이다. 이상선

(2004)의 연구에서 우리나라 여대생들은 평균 6.19 개의 속성을 택했으며, SAWBS 점수는 평균 40.68<sup>0</sup> (*SD* =33.73) 이었다. 또한 자존감에 중요했던 첫 번째 속성으로 학교/직장에서의 유능성(31.6%), 개인적 발전(16.8%), 성격(14.8%), 연예관계(14.1%), 몸매와 체중(8.6%) 순으로 뽑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 5가지 속성만을 뽑아서 축소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SAWBS 점수는 10<sup>0</sup> ~270<sup>0</sup> 사이에 분포하였으며, 평균 63.81<sup>0</sup> (*SD* =37.46) 이었다. 본 연구 참가자들은 자존감에 중요한 첫 번째 속성으로 학교/직장에서의 유능성(36.0%), 개인적 발전(26.4%), 성격(14.2%), 몸매와 체중(12.8%), 연예관계(10.3%) 순으로 선택하였다.

**체중과 몸매에 근거한 자기-가치 평가(Weight and Shape Based Self Value Test :WSSV).**

이상선(2004)이 제작한 것으로, 5점 척도, 2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예, “지난 4주 동안 당신의 체중이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영향을 주었습니까?”, “지난 4주 동안 당신의 몸매가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영향을 주었습니까?”)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이상선(2004)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88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3 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척도-III: 내면화 소척도(The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III: Internalization subscale).**

Thompson, van den Berg, Roehring, Guarda와 Heinberg(2004)가 개발한 척도로, 신체상과 섭식 장애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영향을 측정한다. 이 척도는 30개 문항과 다음의 4개의 요

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인 내면화, 운동(athlete) 내면화, 정보, 압력. 이 중 두 개의 내면화 척도는 일반적인 대중매체의 영향력에 대한 내면화(예, “내 몸이 TV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보였으면 좋겠다.”)와 건강한 몸매(athletism) 내면화(예, “운동선수처럼 건강해 보이려고 노력한다.”)를 나타낸다. Thompson 등(2004)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각각 일반적 내면화 =.92, 운동 내면화 =.89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내면화 =.94, 운동 내면화 =.83 이었다.

**신체 외모 비교 척도(Physical Appearance Comparison Scale: PACS)**

이 척도는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타인의 외모와 자신의 외모를 비교하는 정도를 측정한다(Thompson, Heinberg, & Tantleff, 1991). 그런데 한 개의 역문항이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밝혀져(Shroff & Thompson, 2006; Vander Wal & Thelen, 2000), 본 연구에서는 4개의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내적 일치도 계수는 .82였다.

**섭식 장애 척도-2: 마르고 싶은 욕망, 폭식, 신체 불만족 소척도(The Eating Disorder Inventory-2: Drive for thinness, Bulimia, Body dissatisfaction)**

Garner(1991)가 개발한 자기-보고 형태의 척도로 91개의 문항, 8개의 소척도와 3개의 연구 척도로 이루어 졌으며, 6점 척도 상에서 응답한다. 이 척도는 신경성 거식증, 폭식증과 관련해서 널리 쓰이는 척도 중 하나이다. 여러 소척도 중에서 체중 증가에 대한 공포, 체중에 대한 몰두, 다이어트에 대한 내용을 측정하는 마르고 싶은 욕망 소척도, 신체 부위

에 대한 불만족을 측정하는 신체 불만족 소척도, 통제할 수 없는 폭식에 대한 생각과 행동을 측정하는 폭식증 소척도가 섭식장애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많이 쓰인다. Garner(1991)는 ‘전혀 아니다’, ‘거의 아니다’, ‘가끔 그렇다’를 0점으로, ‘자주 그렇다’는 1점, ‘대개 그렇다’는 2점, ‘항상 그렇다’는 3점으로 하였으나, 이런 방법은 응답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Tylka와 Subich(2004)의 연구에서처럼, 모든 응답에 부여된 점수를 활용해 평균값을 내었다. 한국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다음과 같다: 마르고 싶은 욕망 =.92, 신체 불만족 =.92, 폭식 =.86 (이상선, 2004). 본 연구에서는 각각 .90, .86, .79 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인구 통계학적 정보(Demographic information)

응답자의 나이, 키, 체중, 다이어트 여부 등 기본적인 응답자 정보를 자기-보고 형태로 수집하였다.

#### 자료분석

SPSS 12.0을 이용해 기술 통계 분석과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 모형과 구조 모형 검증은 AMOS 5.0을 사용하였다. 신체 비교, 절식 행동, 신체 불만족, 폭식 행동 척도는 각각 한 개의 요인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Russell, Kahn, Spoth와 Altmaier (1998)의 제안을 따라, 문항 묶음(item parceling)을 했다. 문항 묶음은 일요인 분석을 한 후에 요인 부하량에 따라 각 문항 집단의 평균값을 비슷하게 배분해, 척도 내에서 문항을 2~3집단으로 나누어, 구조 방정식 검증을 위한 몇 개의 잠재변인으로 만드는 절차이다. 이런 방

법은 각 잠재변인들 간의 상관을 증가시키며, 모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여러 적합도 지수를 제시했는데, Hu와 Bentler(1999)는 TLI와 CFI가 .95이상, RMSEA .06이하를 좋은 모형의 기준으로 제안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적합도를 따랐다.

## 결 과

본 연구의 각 측정변인과 잠재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은 표 1과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Tabachnick와 Fidell(1996)은 각 잠재변인들의 상관이 .90보다 작아야 한다고 제안하는데, 본 연구의 변인들은 모두 높은 유의미한 상관 관계를 보였으나( $p < .01$ ), .90을 넘지 않았다. 절식행동은 폭식 행동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r = .501, p < .01$ ). 몸매와 체중에 기반한 자아 존중감 척도(Shape and Weight-Based Self-Esteem Inventory:SAWBS)와 체중과 몸매에 근거한 자기-가치 평가 척도(Weight and Shape Based Self Value Test: WSSV)는 자존감에 있어서 신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측정하지만, 두 척도는 평균, 표준편차 값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잠재변인들과의 상관을 확인하기 위해서 변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Z 점수로 변환을 하여 ‘신체 중요성’ 변인으로 합산을 하였다. 그 결과 신체 중요성 변인은 다른 변인들과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냈으며, 특히 절식행동( $r = .679, p < .01$ ), 신체 불만족( $r = .427, p < .01$ )과 유의미한 높은 상관을 드러냈다.

구조모형을 검증하기 전에 하위 측정 변인들이 잠재 변인을 적절히 측정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측정 모형 검증을 해 본 결과, 좋은



표 1. 18개 측정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 부모	1																	
2 또래	.249**	1																
3 미디어	.248**	.527**	1															
4 일반적 내면화	.168**	.493**	.582**	1														
5 운동 내면화	.148**	.319**	.445**	.650**	1													
6 비교 I	.155**	.350**	.461**	.571**	.357**	1												
7 비교 II	.106**	.383**	.450**	.570**	.360**	.741**	1											
8 SAWBS	.128**	.264**	.341**	.364**	.197**	.283**	.275**	1										
9 WSSV	.186**	.331**	.461**	.432**	.354**	.375**	.379**	.448**	1									
10 신체 불만족 I	.222**	.256**	.273**	.318**	.137**	.240**	.217**	.344**	.341**	1								
11 신체 불만족 II	.290**	.251**	.271**	.318**	.125**	.254**	.216**	.348**	.386**	.776**	1							
12 신체 불만족 III	.199**	.143**	.173**	.189**	.100**	.172**	.106**	.238**	.268**	.494**	.623**	1						
13 절식 행동 I	.290**	.391**	.525**	.451**	.274**	.402**	.355**	.510**	.489**	.438**	.445**	.305**	1					
14 절식 행동 II	.286**	.428**	.526**	.573**	.322**	.458**	.444**	.494**	.558**	.558**	.590**	.377**	.721**	1				
15 절식 행동 III	.279**	.420**	.534**	.516**	.328**	.464**	.398**	.513**	.583**	.469**	.484**	.329**	.757**	.772**	1			
16 폭식 I	.206**	.251**	.276**	.274**	.182**	.313**	.267**	.180**	.315**	.258**	.272**	.193**	.308**	.352**	.438**	1		
17 폭식 II	.120**	.257**	.275**	.286**	.188**	.259**	.235**	.213**	.332**	.249**	.252**	.151**	.352**	.356**	.485**	.609**	1	
18 폭식 III	.147**	.314**	.312**	.376**	.229**	.321**	.293**	.232**	.375**	.289**	.339**	.268**	.357**	.442**	.482**	.558**	.648**	1
평균	45.09	46.54	34.24	31.46	15.65	5.77	6.66	63.81	5.39	4.47	3.78	4.10	3.25	4.17	3.24	2.11	2.01	3.31
표준편차	12.22	9.26	7.06	8.02	3.78	1.92	1.78	37.46	2.13	0.99	1.07	1.12	1.11	1.38	1.35	0.75	0.98	1.15

\*  $p < .05$ , \*\*  $p < .01$

적합도 지수를 나타내 자료에 잘 부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chi^2(df=114, N=731)=362.366$ ,  $p = .000$ ; GFI=.946; AGFI=.919; TLI=.952; CFI=.964; RMSEA=.055. 표 2는 측정 모형의

요인 부하량을 나타내는데,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

다음으로 구조모형 검증을 위해, 심리적 기능 변인을 제외한 삼자 영향 모형(Keery et al.,

표 2. 측정 모형의 요인 부하량

측정변인	비표준화 계수	S.E.	Z	표준화 계수
사회문화적 영향				
부모 영향	1.000			.318 <sup>1)</sup>
또래 영향	1.568	.206	7.627	.655 <sup>***</sup>
미디어 영향	1.468	.186	7.875	.802 <sup>***</sup>
내면화				
일반적 내면화	1.000			.987
운동 내면화	.312	.018	17.002	.654 <sup>***</sup>
비교				
비교 I	1.000			.869
비교 II	.905	.040	22.697	.851 <sup>***</sup>
신체 중요성 지각				
WSSV	1.000			.653
SAWBS	17.915	1.298	13.801	.621 <sup>***</sup>
신체 불만족				
신체 불만족 I	1.000			.646
신체 불만족 II	1.401	.072	19.409	.949 <sup>***</sup>
신체 불만족 III	1.113	.059	18.709	.817 <sup>***</sup>
절식 행동				
절식 행동 I	1.000			.822
절식 행동 II	1.329	.046	28.741	.880 <sup>***</sup>
절식 행동 III	1.319	.045	29.256	.891 <sup>***</sup>
폭식				
폭식 I	1.000			.727
폭식 II	1.454	.076	19.032	.813 <sup>***</sup>
폭식 III	1.674	.089	18.844	.796 <sup>***</sup>

\*\*\*  $p < .001$

1) 각 잠재변수에 해당하는 첫 번째 측정 변수는 1로 고정된 값이다.

표 3. 잠재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

	1	2	3	4	5	6	7
1 사회문화적 영향	1						
2 내면화	.508**	1					
3 비교	.424**	.591**	1				
4 신체 중요성 지각	.412**	.461**	.422**	1			
5 신체 불만족	.357**	.279**	.244**	.427**	1		
6 절식	.578**	.528**	.491**	.679**	.554**	1	
7 폭식	.360**	.348**	.353**	.376**	.340**	.501**	1
평균	126.09	47.10	12.43	0.04	12.35	10.61	7.42
표준편차	21.32	10.84	3.46	1.71	2.76	3.51	2.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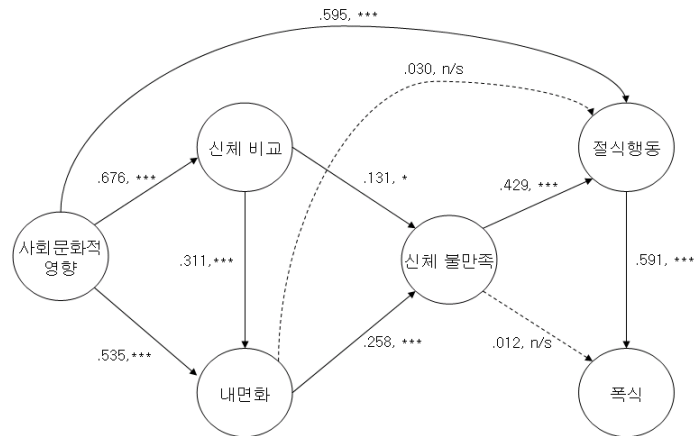
사회문화적 영향= 부모+또래+미디어; 내면화= 일반적 내면화+운동 내면화;

신체 중요성 지각= SAWBS+WSSV

\*  $p < .05$ ,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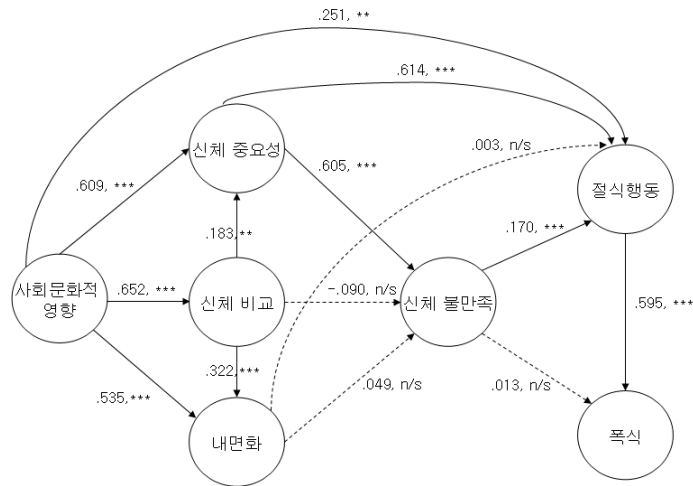
2004)을 검증한 결과 적절한 모형 적합도를 나타냈다:  $\chi^2(df=94, N=731)=335.078, p=.000$ ; GFI=.945; AGFI=.921; TLI=.951; CFI=.962; RMSEA=.059 (그림 1 참조). 모형의 경로들 중에서 ‘마른 이상의 내면화’가 ‘절식 행동’으로

가는 경로( $t=.030$ )와 ‘신체 불만족’이 ‘폭식’으로 가는 경로( $t=.012$ )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마른 이상의 내면화’는 ‘절식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폭식 행동의 경우 ‘절식 행동’을 매개로 하여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다음에는 가정했던 대로, 모형 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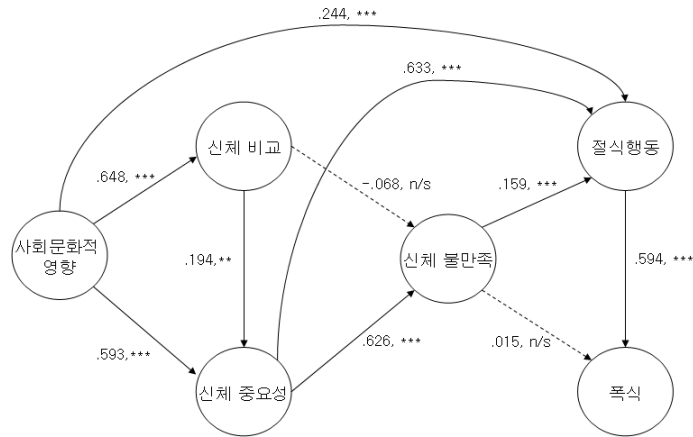
\*  $p < .05$ , \*\*  $p < .01$ , \*\*\*  $p < .001$

그림 1. 심리적 기능 변인을 제외한 삼원 영향 모형 검증



\*  $p < .05$ , \*\*  $p < .01$ , \*\*\*  $p < .001$

그림 2. 통제 모형



\*  $p < .05$ , \*\*  $p < .01$ , \*\*\*  $p < .001$

그림 3. 신체 중요성 지각 모형

서 ‘마른 이상의 내면화’ 변인과 ‘신체 중요성 지각’ 변인을 동시에 투입하여 서로의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신체 불만족과 절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그림 2 참조). 그 결과 ‘신체 중요성 지각’은 신체 불만족( $t=.605, p<.001$ )과 절식행동( $t=.614, p<.001$ )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

면, ‘마른 이상의 내면화’ 변인은 어느 것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못했다.

최종적으로 ‘마른 이상의 내면화’ 변인을 제외하고 자기-평가의 신체 중요성 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그림 3 참조). 그 결과 ‘신체 중요성 지각’ 변인은 ‘신체 비교’와 ‘신체 불만족’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신

표 4. 모형의 적합도 지수

모형	$\chi^2$	df	GFI	AGFI	TLI	CFI	RMSEA
삼자 영향 모형	335.078	94	.945	.921	.951	.962	.059
통제 모형	370.339	121	.945	.922	.954	.964	.053
신체 중요성 지각 모형	288.243	94	.952	.931	.958	.967	.053

체 불만족( $t=.626, p<.001$ )과 절식행동( $t=.633, p<.001$ )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종 모형에서는 전반적인 적합도 지수가 상승하였다:  $\chi^2(df=94, N=731)=288.243, p=.000; GFI=.952; AGFI=.931; TLI=.958; CFI=.967; RMSEA=.053$  (표 4 참조).

## 논 의

삼자 영향 모형 검증 결과는 Keery 등(2004)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했는데, 두 개의 경로를 제외한 모든 경로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 불만족에서 폭식으로 가는 경로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많은 젊은 한국 여성들이 다이어트 중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는 오히려 타당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Wardle et al., 2006). 마른 이상의 내면화는 신체 불만족에 영향을 주었으나, 절식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런 결과는 내면화가 절식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Stice, 2001; Stice, Mazotti, Krebs, & Martin, 1998). 요컨대, 삼자 영향 모형이 한국 여대생을 설명하는 데에 전반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마른 이상의 내면화가 절식행동을 설명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마른-이상의 내면화는 개념적으로 모호하여, 그 의미를 정확히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신체 중요성 지각모형을 대안으로 제안하였다. 모든 사람이 날씬한 이상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체 불만족과 절식과 같은 외현화된 행동과 태도의 기저에는 어떠한 심리 내적인 과정이 있을 것이라 추측했다. ‘신체 중요성 지각’이 그러한 심리 내적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가정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마른 이상의 내면화’와 ‘신체 중요성 지각’을 동시에 투입한 통제 모형을 확인해 본 결과, ‘마른 이상의 내면화’ 경로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삼자 영향 모형이 좋은 적합도 지수를 나타냈지만, 본 연구에서 두 변인을 동시에 투입하여 서로의 효과를 통제한 결과, 마른-이상의 내면화보다 신체 중요성 지각이 신체 불만족과 절식행동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자기-평가의 신체 중요성 모형에서, 사회문화적 영향에서 절식행동에 이르는 직접 효과보다 신체 중요성 지각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신체 중요성 지각과 신체 불만족이 각각 절식행동을 매개로 해서, 최종적으로 폭식행동에 이르게 됨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지각된 신체 중요성은 섭식 행동에 있어서 심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시사

하였다. 최종적으로 마른 이상의 내면화 변인을 제외시키고, '신체 중요성 지각'으로 이루어진 모형 검증은 가장 좋은 모형 적합도를 나타냈으며 그 경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 중요성 지각은 여러 자기-개념 중에서 신체를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를 나타낸다. 우리 사회는 신체에 대해 높은 가치를 두기 때문에 개인의 자기-평가 차원에서 신체의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즉, 다른 어떤 자기-개념 보다 신체나 체중에 대해 보다 더 의식하게 된다면, 몸매와 관련된 행동을 더 많이 하도록 동기화될 것이며, 몸과 관련한 사소한 실패에도 개인은 큰 좌절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또래나 부모로부터 몸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이나 관심을 받기 때문에 몸을 자기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하게 되고 이는 이상 섭식 행동에 주된 원인이 된다.

이전의 연구들에서는 섭식 장애의 치료를 위해 마른-이상의 내면화 수준을 줄이는 것을 강조했다(Stice, 2002; Stice, Mazotti, Weibel, & Agras, 2000).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본 바로는 자기-평가에서 신체의 중요성을 줄이거나, 신체 이외의 다른 영역이 한 개인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더 중요함을 인식시키는 것이 섭식 장애의 예방과 치료 개입에 있어서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 번째로 일반 여대생 집단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임상 집단으로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움이 있다. 정상집단과 임상 집단은 증상의 수치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질적인 차이도 분명 존재할 것이다. 예를 들면, 두 집단이 보고하는 신체 불만족과 이상 섭식 행동은

다른 특징을 지닐 것이고 서로 다른 심리적 변인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두 집단을 구별할 수 있는 제 3의 변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로, 이 연구는 종단 연구가 아니므로, 섭식 병리 발달에 있어서 예측적인 한계를 지닌다. 세 번째로, 사회문화적 영향과 신체 중요성 지각사이에 또 다른 심리적 과정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추후 연구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을 제안한다. 첫 번째로, 가족이 섭식의 사회화 과정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부모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가족들이 3명 혹은 4명의 가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만을 고려하였으나, Hill과 Franklin(1998)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아의 몸매나 섭식 행동에 대한 남자 형제들의 놀림, 여자 형제들의 언급이 신체 이미지 장애나 섭식 문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본 연구는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으나, 현재 사회적으로 남녀 구분없이, 이상적인 신체 이미지로 건강하고 균형 잡힌 몸매를 강조하므로,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Adams, Turner와 Bucks(2005)는 인터뷰를 통해서 남성들의 신체 불만족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보고했다. 세 번째로 성격과 같은 보다 개인적인 심리적 변인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신경성 거식증인 사람들은 높은 참을성을 보고한 반면, 폭식증의 경우 높은 충동성과 감각 추구 성향을 나타낸다고 한다(Cassin & von Ranson, 2005). 네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다이어트나 절식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다루었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다이어트의 긍정적인 부분인 건강관리의 측면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Wardle et al., 2006).

참고문헌

- 노은아, 안창일 (2003). 여아의 섭식장애 위험 요인들과 관련된 어머니의 요인들-어머니의 섭식장애 위험요인들과 관여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2), 127-144.
- 문정신 (2003). 공적 자기의식 및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 가치의 내재화와 신체상과의 관계. 이화여자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상선 (2004). 거식행동과 폭식행동에 자기 평가의 신체 비중, 신체 불만족, 완벽주의, 충동성이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Adams, G., Turner, H., & Bucks, R. (2005). The experience of body dissatisfaction in men. *Body image*, 2, 271-283.
- Cafri, G., Yamamiya, Y., Brannick, M., & Thompson, J. K. (2005). The influence of sociocultural factors on body image: A meta-analysis.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12(4), 421-433.
- Cassin, S. E. & von Ranson, K. M. (2005). Personality and eating disorders: A decade in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25, 895-916.
- Cusmano, D. L., & Thompson, J. K. (1997). Body image and shape ideals in magazines: Exposure, Awareness, and internalization, *Sex roles*, 37, 701-721.
- Festinger, L. (1954).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 *Human Relations*, 7, 117-140.
- Frank, J. B. & Thomas, C. D. (2003). Externalized self-perception, self-silencing, and the prediction of eating pathology.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 35(3), 219-228.
- Garner, D. M. (1991). *Eating disorder inventory-2: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Garner, D. M., Garfinkel, P. E., Schwartz, D., & Tompson, M. (1980). Cultural expectations of thinness in women. *Psychological Reports*, 47, 483-491.
- Geller, J., Johnston, C., & Madsen, K. (1997). The role of shape and weight in self-concept: The shape and weight based self-esteem inventor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1(1), 5-24.
- Gilbert, D. T., Giesler, R. B., & Morris, K. A. (1995). When comparisons aris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227-236.
- Goethals, G. R. (1986). Social comparison theory: Psychology from the lost and found.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2, 261-278.
- Heinberg, L. J., & Thompson, J. K. (1995). Body image and televised images of thinness and attractiveness: A controlled laboratory investigation.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4, 325-338.
- Heinberg, L. J., & Thompson, J. K. (1992). The effects of figure size feedback (positive vs. negative) and target comparison group (particularistic vs. universalistic) on body image disturbance.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12, 441-448.
- Hill, A. J., & Franklin, J. A. (1998). Mothers, daughters, and dieting: Investigating the transmission of weight control. *The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7, 3-14.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 1-55.
- Kanakis, D. M., & Thelen, M. H. (1995). Parental variables associated with bulimia nervosa. *Addictive Behaviors, 20*(4), 491-500.
- Keery, H., van den Berg, & Thompson, J. K. (2004). A test of the Tripartite Influence Model of Body Image and Eating Disturbance in adolescent girls. *Body image: An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1*, 237-251.
- Lattimore, P. J., & Butterworth, M. (1999). A test of the structural model of initiation of dieting among adolescent girls.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46*, 295-299.
- Marsh, H. W., & Parker, J. W. (1984). Determinants of student self-concept: Is it better to be a relatively large fish in a small pond even if you don't learn to swim as wel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213-231.
- McFarlane, T., McCabe, R. E., Jarry, J., Olmsted, M. P., & Polivy, J. (2001). Weight-related and shape-related self-evaluation in eating disordered and non-eating-disordered women.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29*(3), 328-335.
- Mendelson, B. K., McLaren, L., Gauvin, L., & Steiger, H. (2002). The relationship of self-esteem and body esteem in women with and without eating disorder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31*(3), 318-323.
- Moreno, A., & Thelen, M. H. (1993). Parental factors related to bulimia nervosa. *Addictive Behaviors, 18*, 681-689.
- Morry, M. M., & Staska, S. L. (2001). Magazine Exposure: Internalization, self-objectification, eating attitudes, and body satisfaction in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 33*(4), 269-279.
- Morse, S., & Gergen, K. J. (1970). Social comparison, self-consistency, and the concept of self.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6*, 148-156.
- Ohring, R., Graber, J. A., & Brooks-Gunn, J. (2002). Girls' recurrent and concurrent body dissatisfaction: Correlates and consequences over 8 year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31*, 404-415.
- Paxton, S. J., Schutz, H. K., Wertheim, E. H., & Muir, S. L. (1999). Friendship clique and peer influences on body image concerns, dietary restraint, extreme weight loss behaviors, and binge eating in adolescent girl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8*, 255-266.
- Russell, D. W., Kahn, J. H., Spoth, R., &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 18-29.
- Shroff, H., & Thompson, J. K. (2006). The tripartite influence model of body image and eating disturbance: A replication with adolescent girls. *Body Image, 3*, 17-23.
- Stice, E. (2002). Risk and maintenance factors for eating pathology: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28*, 825-848.
- Stice, E. (2001). A prospective test of the Dual-Pathway Model of Bulimic Pathology:



- Mediating Effects of Dieting and Negative Affect.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0(1), 124-135.
- Stice, E., Mazotti, L., Krebs, M., & Martin, S. (1998). Predictors of adolescent dieting behaviors: A longitudinal study.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12, 195-205.
- Stice, E., Mazotti, L., Weibel, D., & Agras, W. S. (2000). Dissonance prevention program decreases thin-ideal internalization, body dissatisfaction, dieting, negative affect, and bulimic symptoms: A preliminary experi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27, 206-217.
- Stice, E., Nemeroff, C., & Shaw, H. (1996). A test of the dual pathway model of bulimia nervosa: Evidence for restrained-eating and affect-regulation mechanism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5, 340-363.
- Stice, E., & Shaw, H. E. (2002). Role of body dissatisfaction in the onset and maintenance of eating pathology: A synthesis of research findings.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53, 985-993.
- Stormer S. M., & Thompson J. K. (1996). Explanations of body image disturbance: a test of maturational status, negative verbal commentary, social comparison, and sociocultural hypothesi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19, 193-202.
- Striegel-Moore, R. H., Silberstein, L. R., & Rodin, J. (1986). Toward an understanding of risk factors for bulimia. *American Psychologist*, 41, 246-263.
- Tabachnick, B. G., & Fidell, L. S. (1996). *Using multivariate statistics* (3rd ed.). New York: HarperCollins.
- Thompson, J. K., Heinberg, L. J., Altabe, M., & Tantleff-Dunn, S. (1999) *Exacting beauty: theory, assessment and treatment of body image disturbance*.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Thompson, J. K., Heinberg, L. J., & Tantleff, S. (1991). The Physical Appearance Comparison Scale (PACS). *The Behavior Therapist*, 14, 174.
- Thompson, J. K., & Stice, E. (2001). Thin-ideal internalization: Mounting evidence for a new risk factor for body image disturbance and eating pathology.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0, 181-183.
- Thompson, J. K., van den Berg, P., Roehring, M., Guarda, A., & Heinberg, L. J. (2004). The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3.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35, 293-304.
- Twamley, E. W., & Davis, M. C. (1999). The Sociocultural model of eating disturbance in young women: The effects of personal attributes and family environment.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8(4), 467-489.
- Tylka, T. L., & Subich, L. M. (2004). Examining a multidimensional model of eating disorder symptomatology among college wo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3), 314-328.
- Vandel Wal, J. S., & Thelen, M. H. (2000). Predictions of body image dissatisfaction in elementary-age school girls. *Eating Behaviors*, 1, 105-122.

Wardle, J., Haase, AM., & Steptoe, A. (2006).  
Body image and weight control in young  
adults: International comparisons in university  
students from 22 count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Obesity*, 30, 644-651.

원고접수일 : 2006. 9. 13.

게재결정일 : 2006. 11. 13.

## **The Perceived Body Importance Model of Self-Evaluation on Restrained Eating and Bulimia Behaviors in a sample of female undergraduate**

**Jeongsoo Park      Minkyu Lee      Heecheon Shin**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of Ajou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monstrate the effect of perceived body importance in self-evaluation on restrained eating and bulimia behaviors. Based on the Tripartite Influence Model(Keery, van den Berg, & Thompson, 2004), the perceived body importance model of self-evaluation is constructed and model fit is identified. Sociocultural influence(parent, peers, and media), body comparison, thin-ideal internalization, perceived body importance, body dissatisfaction, restrained eating, and bulimia behaviors in a sample of female undergraduate ( $N=731$ ) are assessed to test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result suggests that perceived body importance influence on body dissatisfaction and restrained eating more significantly and directly than dose thin-ideal internalization. As self-evaluation, the more individuals perceive body being important, the more body dissatisfaction and restraint eating are increased.

*Keywords : eating disorders, eating behaviors, body dissatisfaction, body comparison, perceived body importance, sociocultural influence*